



# 노스텔지아

각본: 남기웅

## 기획의도

돌아갈 수 없는 그때를 향한 노스텔지아. 노스텔지아를 느낀다는 것은 분명 슬픈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스텔지아를 유발하는 대상 -이를테면 세상을 떠난 가족, 철거해버린 옛 놀이터, 잃어버린 소중한 물건- 등을 아예 잊어버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대상들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사람과 함께 들던 노래만 들려와도, 그 장소와 비슷한 냄새만 풍겨와도 다시 유발되는 것이 노스텔지아라는 감정이다. 그 고통의 감정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그 고통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 주제

고통의 감정을 없애기 위한 해결책은 그리움을 유발하는 대상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대상을 기억하고 일상 속 한 부분으로 남겨놓는 것이다.

## 로그라인

우연히 듣게 된 노래를 통해 출산 중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노스텔지아를 느끼게 된 남자, 내면 속에 숨겨두었던 그녀와의 옛 추억을 다시 꺼내본다.

## 1. 숲 속 (새벽)

나무 사이로 안개가 드리운 어스름한 새벽.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는 남자.  
언덕에서 희미하게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언덕을 넘어와 벤치에 앉는 등산객.  
등산객의 미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멍하니 노래를 듣는 남자, 눈빛이 떨린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앞을 본다.  
잡초가 무성한 들판, 우두커니 서있는 임신한 여자.  
남자가 여자에게 걸어간다.  
마주서는 남자와 여자.  
노래가 중간중간 끊기며 지지직 소리가 난다.  
라디오 신호가 완전히 나갔는지 치이익- 하는 소리와 동시에,  
여자의 다리 사이로 피가 폭포처럼 터져 나온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노이즈가 멈춘다.  
정신을 차린 남자. 벤치에 앉은 체다.  
등산객이 라디오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린다.  
라디오 안테나가 부러지고 등산객은 짜증을 내며 자리를 뜬다.  
홀로 남겨진 남자, 들판을 바라보지만 아무도 없다.

## 2. 남자의 방 (아침)

누워있던 남자, 몸을 일으킨다.  
침대에 앉아 한동안 고민하더니,  
장롱을 뒤져 카세트 레코더를 꺼낸다.  
남자가 책상에 앉아 카세트를 재생한다.  
등산객이 듣던 노래가 여자의 목소리로 흘러나온다.  
책상 서랍을 열어 액자를 꺼내는 남자.  
임신한 여자와 남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는 남자.  
여자가 침대에 앉은 체로 노래를 녹음한다.  
밝게 빛나는 여자의 머리카락.  
남자가 눈을 감고 노래를 따라 부른다.  
노래의 하이라이트, 남녀의 듀엣이 방 안에 울린다.  
어느새 여자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남자의 목소리만 들린다.  
노래가 끝나자 방 안에 남자만 덩그러니 앉아있다.  
레코더를 끄는 남자.  
서랍안에 액자를 넣고 한동안 바라보더니,  
사진 속 여자와 눈이 마주친다.  
다시 액자를 꺼내 책상에 놓는 남자.  
아침 햇살이 사진 속 남자와 여자를 밝게 비춘다.

*Fin*